소년단

1957. 1

입단 서약식

평양 제4 인민 학교에서 김 창규 촬영

앞표지…… 세배하러 가요……… 리 건영 그림

소년단

1957년 제1호 내용

세배

김 철

오동나무 두그루 나란히 선 울 밑에
겨울에도 얼지 않고 샘 솟는다 샘골'집
무릎까지 빠지는 숫눈'길 헤치고
마을의 어린이들 세배하러 왔네,

명주 새옷 입으신 샘골'집 할아버지
주먹 같은 대통으로 화로를 툭툭치며
담배 쌈지 펼쳐 놓듯 펼쳐 놓는 이야기
옛날에도 옛적 한옛적의 이야기—

《그 때에도 설날이면 차몀에다 꿀 먹고
널 뛰고 연띄우고, 윷치고 제기찼다.
머리태 츠렁츠렁 부자'집 총각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닭싸움도 시켰다.

하지만 복돌이는 놀지도 못하고
지주네 외양'간을 쳐내고 있었단다.
외양'간엔 황소 암소 송아지에 망아지
구유에 주둥이를 비비대고 있었단다.

복돌이는 혼자서 생각했단다.
설날에도 맨발에 짚신짝 끄을고
외양'간 하루 종일 쳐야 하니
아, 설날이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
다고…》

샘골'집 할아버지 눈시울을 좁히며
옛날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담배 쌈지 말듯 이야기를 거둔다—

《복돌이는 해'빛 없는 어린 시절마치고
밤'길 같은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늙어서야 밝은 해'별 마음껏 본단다.
샘골집 령감으로 불리운단다》.

《그러면 복돌이는 할아버지시군요》
《그렇단다 얘들아 나도 너희들처럼
빨간 댕기 목에 매고 노래 부르며
어려서 못해 본 일 이제라도 하련다》

무릎까지 빠지는 숫눈'길 헤치고
마을의 어린이들 세배하러 다니네
겨울에도 샘 솟는다 샘골'집 찾아서
배나무 우거졌다 배나무'집 찾아서…

그림극

박 정 렬

《동무들! 곧 분단 모임을 가지도록 합시다》.

어느 날 공부가 끝나자 분단 위원장 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모임할 차비를 했습니다. 이때 교실 한 쪽에 모여섰던 동주 동무와 몇 동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슬금슬금 달아날 차비를 하는 것이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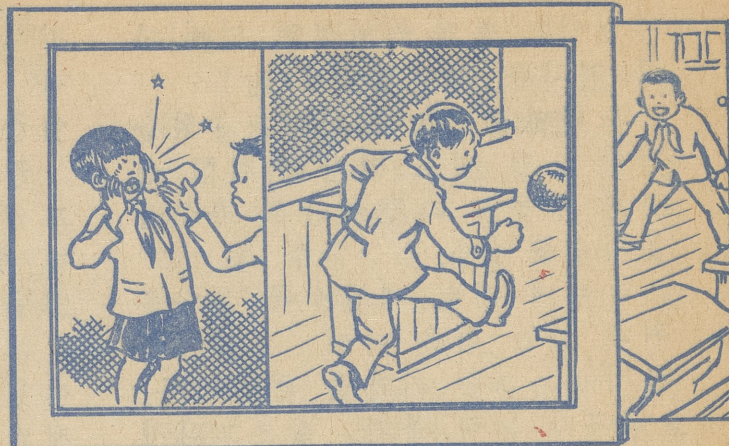
이윽고 《명익 동무네 반 생활은 왜 재미 없는가?》 하는 분단 모임이 시작되였습니다.

《반장이라고 자기 혼자 독판치는 명익 동무는 옳지 않습니다. 그는 소년단원의 영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분단의 영예를…》

분단 위원장 동무의 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였습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선 하품을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분단 동무들을 뺑 둘러보며 벽보 주필인 렴충운 동무가 자꾸 독촉하고 있었지요.

하는 수 없이 열성자들만이 나와서 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따름이였습니다.

《우리 모임은 왜 이렇게 재미 없을가?》.

분단 모임이 끝나자 열성자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앉아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름에 마을 구락부에서 구경한 그림극이 재미 있었지!》

경철 동무가 말했습니다.

《응 그것 참 재미 있었어》.

《우리두 그림극으로 한번 모임을 가져 볼가?》.

《그래 그것 참 좋을거야. 애들은 그림을 퍽 좋아하거던》.

이리하여 다음번에는 명익 동무와 동주 동무의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을 만화로 그린 그림극으로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교실에서 뽈을 차며 거리에서 어린 동생들을 마구 때리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열성자들은 가장 힘든 문제에 부딪치게 되였습니다.

《선생님더러 그려 달라지 뭐》.

《아니야, 선생님은 여간 바쁘시지 않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건 우리 힘으로 하도록 해

야겠어》. 분단 위원장의 말에 다들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도화만은 늘 자신있게 5점을 받아 오던 벽보 편집 위원인 심석찬 동무도 그림극만은 자신을 못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분단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보겠다는 생각에 그는 기운을 냈습니다.

《내가 그려 볼가, 잘 그리지 못해도…》.

하고 그는 자진해 나섰습니다.

《참 네 생각을 못했더랬구나. 힘쓰면 될거야》. 열성자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며칠 후 분단 위원회에 가져온 석찬 동무의 그림은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우습광스럽게 되였습니다.

《이런 걸루 어떻게 그림극을 노니, 애두…》.

열성자들은 석찬 동무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석찬 동무는 자기 대로 애써 온 것을 생각하면 섭섭하기는 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럼 또 그려 보자꾸나》 하고 그림을 둘둘 말아 넣었습니다.

끝까지 해보려는 석찬 동무를 도와 열성자들은 그가 보고 그릴 수 있는 그림책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분단을 위해서 힘써 꼭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짬짬이 재권 동무의 형께서 색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석찬 동무가 해야 될 집일을 돕기도 하며 그림의 내용을 의논해서 마음에 들도록 고치기도 했지요.

며칠 후에 그가 분단 위원회에 다시 가져 온 열다섯 장의 그림은 퍽 잘 그려졌습니다.

《참 훌륭한 미술간데》. 분단 열성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번 분단 모임은 그림극 모임을 가진다는 새로운 소식이 분단 벽보를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분단 모임을 가지는 날이였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날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흥미있게 그림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데…》. 서로 이렇게 속삭이는 소년단원 동무들 가운데에 명익 동무와 동주 동무만이 얼굴이 빨개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로 아무리 충고해도 들은 척도 않던 이들도 그림극에서 본 만화의 주인공이 자기겠거니, 생각하니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이날 분단 동무들은 저마다 《다시는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림극처럼 명익 동무와 동주 동무의 잘못을 충고해 주며 도와줄 데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참 재미 있었지》. 분단 동무들의 이런 이야기는 석찬 동무와 분단 열성자들의 마음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분단 위원회는 자기들의 힘으로 분단 사업을 흥미있게 꾸려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였습니다.

《동주가 모임 때에 도망 치기 잘한것두 모임이 재미 없게 되니깐 그랬어》.

《정말 우리들의 그전 모임들은 틀에 박은 것 같았지》

읽은 책 이야기 모임, 영화 감상 모임, 시사 이야기 모임 등 모임을 재미있게 가질 때마다 분단 열성자들은 이렇게 말하군 합니다.

그 후에도 있은 이들의 그림극은 동주 동무나 명익 동무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함남 단천 제 2 인민 학교 대에서

협동 조합 분배 날

평남 성천 제 2 중학교
제2학년 김 강 무

협동 조합 분배 날
참말 흥겨워요.
로력 열매 가득 가득
나누어 가요.

협동 조합 분배 날
새결의 넘쳐요.
아빠 엄마 래년 농사
더 잘 짓재요.

함박눈이 춤을 추며
자꾸 내려요.
꽃펴가는 우리 살림
정말 좋대요.

1957년을 내다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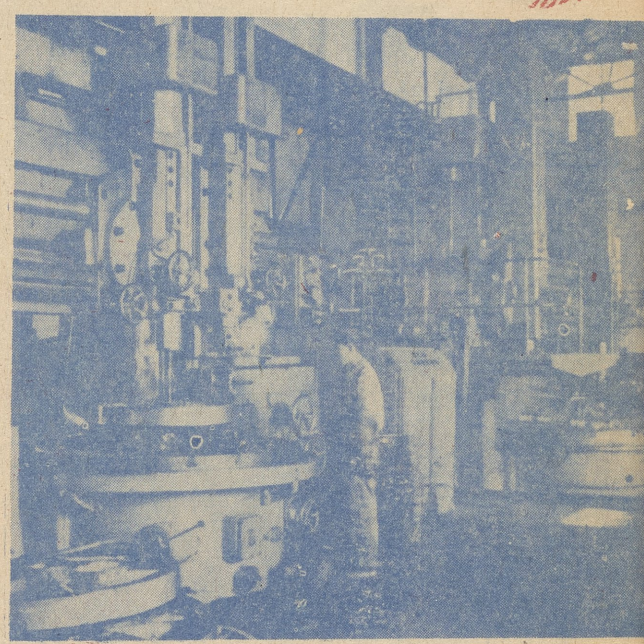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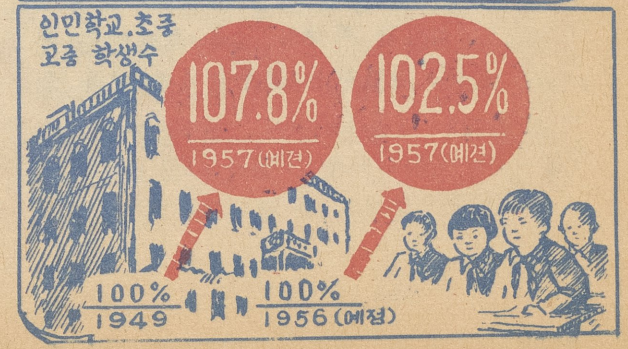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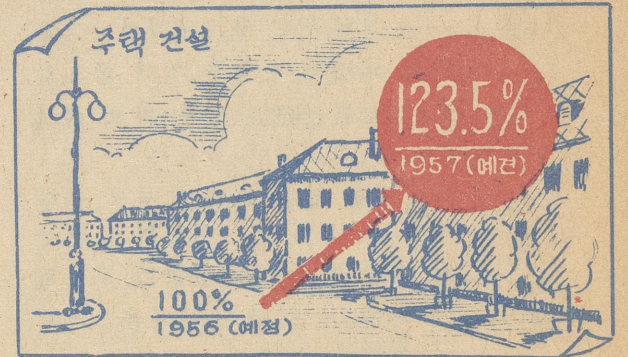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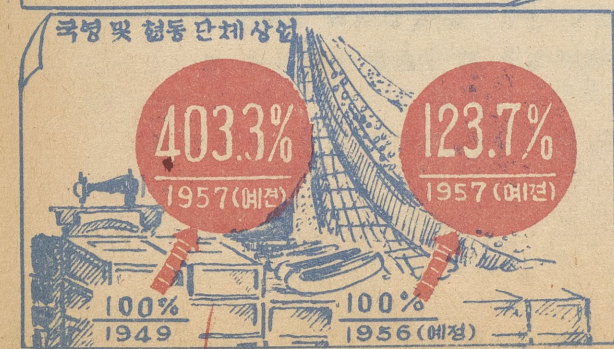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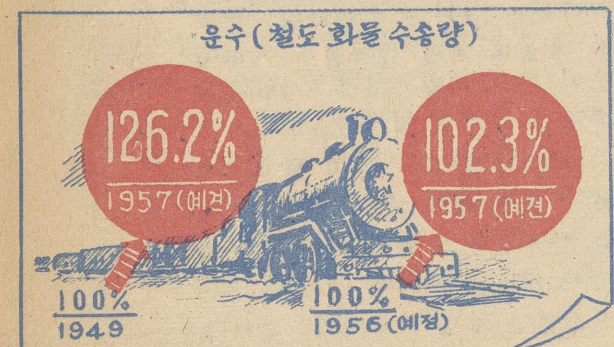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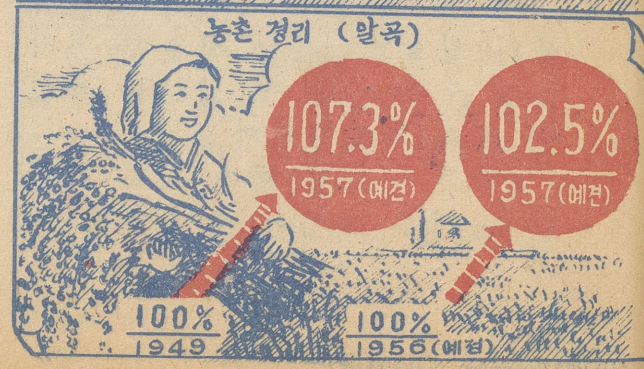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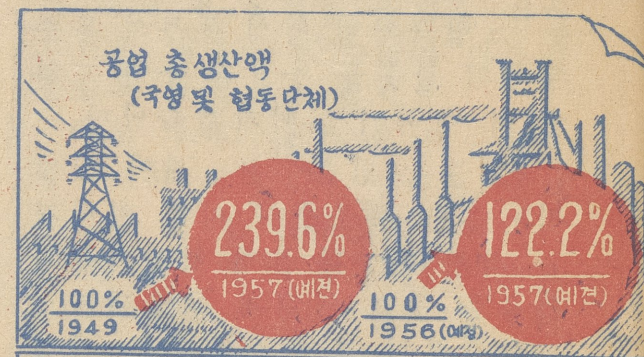
1957년 !

우리 나라의 첫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해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세운 195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넘쳐 실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다. 로동자들은 로력과 기계와 자금을 더 받지 않고 계획보다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낼 목표를 내세웠다.

증산과 절약! 이 구호는 힘차게 울리고 있다.

로동자들은 이를 위하여 기계를 더 사랑하며 시간을 아끼고 아끼고 또 아낄 결심을 다졌다.

거기에 우리의 보다 큰 행복한 생활이 약속되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957년은 우리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소년단 입단 서약식

소년단 입단 서약식은 처음으로 소년단에 입단하는 소년들이 소년단 대 기'발 앞에서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이날 새로 입단하는 소년들은 누구나 아동 혁명단의 고상한 애국주의 전통을 이은 영예로운 조선 소년단 대렬에서 민청 형님들을 뒤따라 조선 로동당에 무한히 충성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며 항상 준비할 엄숙한 맹세를 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단 서약식을 앞두고 열성자 동무들은 새로 입단하려는 동생들에게 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려 주며 소년단원이였던 영웅들과 소년단원의 영예를 용감히 떨친 소년 빨찌산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열성자들은 어린 동생들을 재미나는 모임들에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소년단 사업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소년단원이 되고 싶어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단 준비가 되면 분단 또는 대 모임에서 의논하고 그들의 입단을 거수로 결정한 후 한 달 안으로 입단 서약식을 가져야 합니다.

입단 서약식 날은 소년단에 새로 입단하는 동무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단 서약식은 의의 깊은 국가의 명절 기념일, 우리 나라 명인들의 탄생 기념일들에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입단 서약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분단별 대렬 보고가 끝난 다음 신입 단원들이 대렬 앞에 일렬로 섭니다.

다음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대 기'발 입장》 구령에 따라 대 기'발이 입장한 후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한 구절씩 떼여 읽어 주면 신입 단원은 그 뒤를 따라 읽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나 입단 서약식을 축하하려 온 어른들이 신입 단원들에게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 줍니다.

다음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신입 단원들을 향하여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라는 소년단의 구호를 부르면 신입 단원들은 《항상 준비》라고 대답하면서 처음으로 소년단 경례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신입 단원들은 왼쪽 대렬 옆에 가 서게 되고 신입 단원들을 축하하여어른들의 간단한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소년단 입단 서약식이 끝나면 신입 단원들을 축하하여 여러가지 재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한 약

강 효 순

벌써 일년 전 내가 2학년 때 일입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보다 두살 우인 나의 오빠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눈을 흘기며 싸움이였답니다.

나는 오빠라고 부르기는 고사하고 준호라고도 부르지 않고 언제나 《당나귀》라고 불렀답니다.

나는 오빠한테 준애라는 말은 좀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나를 찾을 때에는 《할미새》라고 불렀답니다.

나는 1학년 때 봄 방학에 시골 할먼네 집에 가서 논판에 날아 다니는 할미새를 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새였는데 무척 귀여웠습니다. 빛같은 흰빛과 재'빛으로 알락알락하고 꼬리가 길다란데 아주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새처럼 곱다고 해서 할미새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렇다면야 내가 왜 싫어했겠습니까? 할미새는 언제나 꼬리를 아래 우로 흔들며 까불어 댄다고 그렇게 부른게지요.

일년 전 어느 겨울 날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으로 출장 가시고 어머니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집에는 오빠와 나 단 둘이 있었는데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까맣게 잊어 먹었습니다. 글쎄 사흘이 멀게 싸웠으니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흔히 눈을 서로 흘기거나 또는 말다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한 개씩 번갈아 가며 툭툭 갈기다가 어머니한테 욕을 얻어 먹고야 그만두지마는 단 둘이 있을 때에 싸움이 벌어지면 맞붙어서 한참 뒹굴다가 내가 울음통을 터뜨려야 싸움은 끝납니다.

그날 싸움에도 나는 오빠의 손'등에 손톱 자리를 내주었고 나는 머리카락을 몇 오래기 뜯기우고 《으악》하고 울고서야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 오지 않나 하고 밖에 나가 잠간 기다리다가 들어 와서 산수 숙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 문제만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산수 숙제를 잘못 풀어 갔다가 망신을 했는데 오늘까지 채 못해 갔다가는 큰 일입니다.

건넌 방에는 오빠의 동무인 동철이가 와서 오빠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이는 늘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애는 언제나 오빠에게서 배운답니다. 그애가 모르는 것을 오빠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요. 글쎄 남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나를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공부에 대해서는 깨알만큼도 돌보아 주지 않는답니다. 하기는 내가 물어 본 일도 별로 없었지요.

나는 건넌 방문을 살그미 열어 보았습니다. 벌써 나는 아까 싸웠다는 것은 통 잊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쓰고들 있었습니다.

나는 산수 숙제를 좀 가르쳐 주겠는냐

고 물으려다가 아까 싸운 생각이 나서 목구멍까지 나왔던 말이 쑥 들어 가고 말았습니다.

이 때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뛰여 가서 덧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출장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 왔습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깡충깡충 뛰였습니다. 가방을 받아 가지고 방으로 뛰여들어 가며 아버지 오신다고 왁작 떠들어 댔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시고 오빠와 동철이도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커다란 종이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봉지를 꺼내기도 전에 종이 한편을 쪽 찢고 살짝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문문한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벽을 찰삭찰삭 치고 나서 봉지를 꺼내 어머니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쨈꾸러기들에게 카스테라까지 사왔어요》하고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카스테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또 싸움들을 했냐》.

하며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만 얼굴을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카스테라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책을 펴놓고 계속 숙제에 달려 붙었습니다.

조금 후에 어머니는 카스테라 담은 번자와 그리고 오래 동안 쓰지 않던 차 주전자를 들고 들어 왔습니다. 나는 분주히 고뿌를 꺼내 왔습니다.

이 때에 아버지는 가방 속에서 곱게 싼 곽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게 뭐야요》.

나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더니 싱긋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싸움하지 않는 약이란다》.

나는 눈이 둥굴해졌습니다. 그런 약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양에는 그런 약이 있을는지도 모르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푼 곽 속에서는 흰 종이로 싸 놓은 네모진 흰 약이 나왔습니다. 꽁꽁 다져 놓은 눈뎅이를 판판하고 네모지게 쌀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약이라고는 냄새도 맡기 싫은 걸 어쩝니까. 나는 약을 먹으라면 먹는 척하고 입에 물었다가 몰래 뱉아

나는 머리 카락을 몇 오래기 뜯기우고

버리고야 마는 버릇이 있습니다. 글쎄 배가 막 아파도 약을 못먹는 내가 싸움하지 않는 약이라고 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아요?

아버지는 약을 모두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빠와 동철이 몫도 지었습니다.

〈나는 안먹을테야》 하며 나는 몸둥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네 몫은 어떻게 하겠냐》.

《〈당나귀〉주지요, 뭐 나 때문에 싸우나》.

나는 입이 삐죽해졌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하렴》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내 몫을 오빠의 약 우에 포개 놓았습니다. 나는 성수가 나서 카스테라와 차를 가지고 건넌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사온거야》.

하며 책상 우에 놓았습니다. 오빠는 약꾸러미를 보더니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나는 오빠의 손'등에 손톱 자리를 내주었다

《왜 내꺼는 둘이고 동철이꺼는 하나냐》.

《이건 내 몫인데 나는 안먹을테야》.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뛰여 나왔습니다.

조금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갔던 보고를 쓰기 위하여 책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책을 들고 건넌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동철이는 벌써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나는 오빠가 글을 쓰는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합니다. 전과 같으면 뭐라고 팩 소리치겠는데 아무 말 없이 자기 책을 앞으로 잡아 당기며 내 책을 놓을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나는 자리를 넓게 잡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싸움하지 않는 약인 모양이구나, 약이 좋기는 좋은데!》.

그날 저녁 상을 물린 후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약이 또 있어요? 〈당나귀〉가 내게 책상을 내주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있지》.

《그걸 또 먹이자요, 그땐 정말 못나게 굴지 않을거야요》.

그러나 아버지는 담배만 피우고 있을 뿐 약을 꺼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약이지》.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눈만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오빠에게 부탁할게 없냐》.

《숙제 대달라는 것 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숙제 문제를 묻고 싶었으나 아까부터 책상에 종이를 가뜩 펴 놓고 분주히 무엇을 쓰기 때문에 물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 잘 됐다. 건넌 방에 가서 〈오빠〉라고 찾고서 숙제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보아라. 꼭 네 부탁 대로 들어 줄게다》.

나는 암만 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내게 거짓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나귀》에게 오빠라고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암만 해도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요행 내말 대로 들어 준다면 좋아도 《할미새》라고 놀려 주면 더 분할게 아니겠어요. 내가 우둑하니 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또 말했습니다.

《숙제 하지 않아도 되는게로구나 나 같으면 〈오빠〉라고 한번 찾고 숙제를 해 가는게 나을 것 같다》.

《그랬다가 안가르쳐 주면 나만 밑지게요》.

아버지는 출장갔던 보고를 쓰기위하여…

《안 가르쳐 줄 리가 있나 원, 꼭 가르쳐주지》.

《안가르쳐 주면 어떻게 할테야요》.

《그때에야 내라도 가르쳐주지》.

《정말이야요》.

나는 단단히 따졌습니다.

《정말이구 말구》.

나는 건넌 방으로 뛰여 갔습니다.

《오빠!》.

나는 문턱에 우뚝 서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빠는 나를 돌아 보았습니다.

《내 숙제 좀 가르쳐 줄 테야》하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대답을 하지 않거나 《할미새》라고 하면 나는 안방으로 뛰여가 아버지에게 덤벼들 셈이였지요. 그런데 아주 뜻밖이였습니다. 오빠는 자기 책을 밀어 놓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가져 오라, 어디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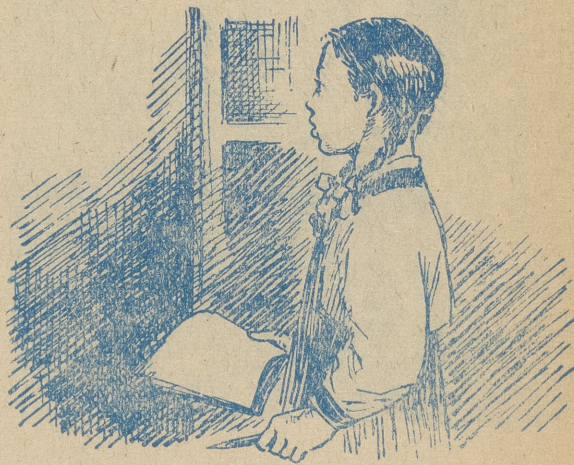
나는 오빠 앞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볼을 살살 긁으며 한참 들여다 보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쎄 낮부터 애써도 풀지 못한 것을 오빠 덕에 쉽게 풀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아버지는 그날 자리에 눕기 전에 아까 그것은 약이 아니라 각 사탕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오빠에게 준 것이 무척 분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다 먹은 것을 어쩝니까. 아버지는 그날 자리에 누워서 우리들에게 형제 싸움이 옳지 않다고 오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탕 못먹은 것만은 분했습니다.

(그 대신 숙제를 풀었으니까 됐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포근히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갈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 한 장을 주시면서 선생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밥풀로 꼭 붙였기 때문에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분단 위원장은 나에게 처음으로 위임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후에 가지는 분단 모임에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척 기

아버지에게 숙제 문제를 묻고 싶었으나……

뻤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말이냐》.

《"나는 오빠와 이렇게 지난다"》이런 제목으로 말이야》.

나는 갑자기 얼굴이 후끈해졌습니다. 글쎄 다른 제목으로 하면 몰라도 이 제목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큰 걱정이였습니다.

나는 똑똑히 허락도 안했는데 분단 위원장은 그날 동무들 앞에서 광고까지 했답니다. 나는 큰 일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생각만 하게 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망신할 것만 같았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막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걱정이 생겼나, 왜 얼굴이 이상하구나!》.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오빠도 없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때 아버지는 좋은 방법을 내게 말해 줄 수 있으니까요. 나는 내가 맡은 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제부터 오빠와 친하게 지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게 아니냐》.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그럴 듯 했습니다. 나는 건넌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오빠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방은 좀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방을 깨끗이 쓸고 물걸레를 쳤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닦을 때에 오빠가 돌아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서 오빠의 세수물과 양치 소금도 내놓아 주었습니다. 그날은 대단히 추웠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려고 서둘 때였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나는 오후 반이니까 이건 네가 끼고 가라》.

오빠는 자기 장갑을 내게 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들은 한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건넌방을 깨끗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풀칠하고 오빠는 붙이고

저녁마다 오빠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빠는 내 숙제를 매일처럼 도와 주었습니다. 자기 종이로 학습장도 만들어 주고 뚜껑에는 곱게 그림까지 그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점에서 좋은 그림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그림으로 건넌 방과 안방을 꾸몄습니다. 나는 풀칠을 하고 오빠는 바람벽에 붙였습니다.

분단 모임의 날이 돌아 왔습니다. 나는 이전에 우리 남매가 싸움하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두 허리를 쥐고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많은 동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자기 형제나 남매끼리 자주 싸움을 했는데 자기 결함들을 고친 우리 남매를 모범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처럼 기쁜 날은 처음이였습니다. 나와 그리 친하지 않던 동무들도 모두 나를 칭찬했답니다.

동무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에 선

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무척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싸움은 그 책임이 상대편에만 있다고 생각지 말고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애 동무는 지난 일주일 동안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히 오빠와 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아버지에게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때부터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왔습니다. 이제는 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월 초하루 날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각 사탕을 또 구해 왔습니다.

《싸움하지 않는 약인데》.

하며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준애의 몫까지 먹었는데 오늘은 내몫까지 네가 먹어라》.

오빠는 자기의 각 사탕을 내 앞으로 밀어 주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종이를 펴서 오빠의 것은 오빠의 고뿌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빠는 고뿌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서로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건 네가 까고 가라

일곱 시 싸이렌이 울린지 이슥해서야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여주는 오늘 아침에도 재빨리 일어나 방을 치우려고 서둘며 창문을 활짝 열어 제꼈지요.

《야! 굉장히 왔는데》. 밤새 내린 눈은 50cm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여주는 옷을 주어 입고 기뻐 날뛰는 강아지를 따라 마당에 나갔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이 저리로 출근하실텐데》. 이렇게 생각한 여주는 씩씩거리며 큰 길 눈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혼자 애써도 얼른 자리가 안날 것을 짐작한 그는 옆에'집 덕주와 순길이 길자 등 자기 반 동무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들도 좋은 생각을 해냈다고 여주를 칭찬하며 가래와 비짜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 눈'길을 헤쳐 나갈 때입니다.

공장에 이르는 언덕'길에서 《푸르릉푸르릉》 자동차의 숨찬 소리에 눈을 돌린 이들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자동차 있는 곳에 달려 가는 것이였습니다. 운전수 아저씨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둘, 셋》 힘껏 자동차를 밀어 올리고 났을 때 운전수 아저씨는 벙글벙글 웃으며 《참 고맙다 추운데 —저 눈'길도 너희들이 친게로구나! 응》 하며 몇번이고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 학교 대 제5분단 1반 동무들입니다.

함북 경성 제2인민학교 정 순

리 맥

어서 눈이 왔으면
그랬더니 참말 눈이 왔지요.

발목까지도 푹푹
쌓이고 쌓인 눈

눈사람 만들기도 재미 있지만
눈싸움은 더욱 더 신이 나지요.

—둘! 가위!
우리 편이 인민 군대 되였지.

팡팡 다지여라.
총알 같이 던지자.

저쪽에서 하나 던지면
우리는 두 개.

저쪽에서 둘 던지면
우리는 네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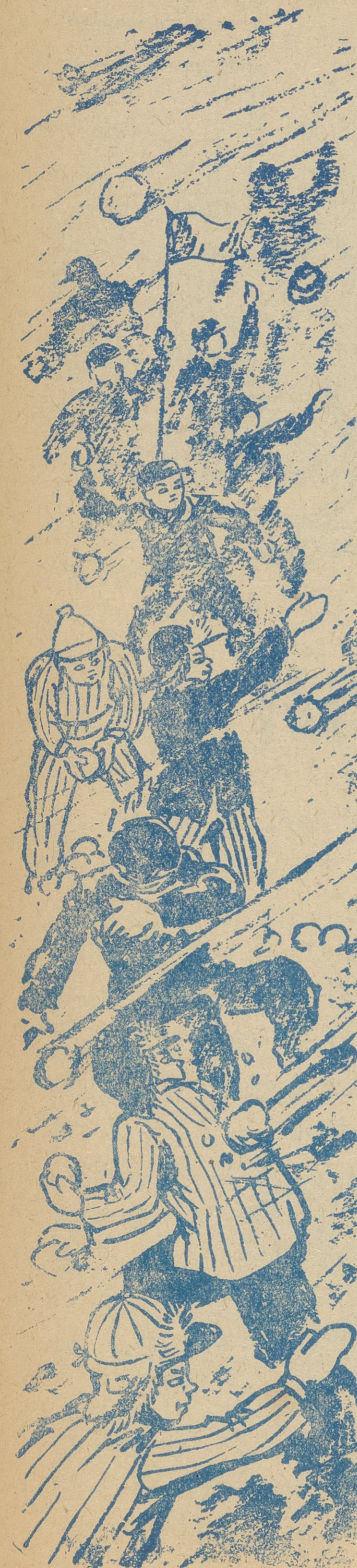
인민 군대 되면 웬 일인지
모두모두 이기겠다 용감하지요.

알미운 《미국놈》 한발'자욱 물러서면
우리는 두발'자욱 따라 잡고

주먹만한 걸 던져 오면
사발만한 걸 던져 보내지.

저쪽에선 못 맞쳐도
코'잔둥만 맞치지.

눈 속에 딩굴어도
땀만 나는 눈싸움.

웬 일인지 웬 일인지
인민 군대 되니 용감하지요.

광산 마을 학교로 와서

오늘 펜을 들고 생각하니까 너에게서 편지 받은지도 한 달이 지났고 내가 아버지를 따라 그곳 곡산 2중 학교에서 이 광산 마을 학교로 전학해 온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구나. 그러구 보니 내가 이곳 동무들과 즐겁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났나바……

명희야! 난 참 이 학교에 와서 퍽 달라졌어.

너도 내 성미를 잘 알지만 내가 늘 구석을 찾아 다니기 좋아하구 모임 때도 말 한 마디 안한다고 너희들은 나를 미련 같은 애라구까지 하지 않았더랬니?…

그런데다 내가 낯선 이 학교 4분단에 전학까지 해 와서 난 종일 가야 말 한 마디 못할 것만 같았단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분단 대항 써클 경연 대회가 있다고 하면서 분단 동무들은 련습하느라고 야단이였어, 그러면서 여태까지 분단 연예 써클에 누구 하나 빠져 본 일 없다구 나를 첫날부터 끌어 내며 무용도 하구 합창에두 꼭 나가야 된다구 하지 않겠니, 그래두 난 할 줄도 모르거니와 부끄러워 못한다구 끝내 거절하였단다.

이곳 동무들은 참 놀랄만한 동무들이야. 글쎄 분단 동무들 누구나 다 무용가고 음악가야. 자기네끼리 연극을 척척 꾸며내구 무용을 지어 내지 않겠니…

한편에서는 리 철자란 동무가 지휘를 하면서 합창을 멋있게 련습하고 분단 열성자들은 무용가라고 이름난 한 영숙 동무와 함께 분단의 재미 있는 생활을 직접 이야기와 무용으로 엮어서 무용극을 멋있게 꾸미였단다.

이런 극은 우리 4분단 뿐만 아니라 다른 분단에서두 모두 재미있게 꾸미고 있었는데 방과후이면 분단 마다에서 련습하는 소리로 학교는 흥성거렸어. 나두 분단 동무들이 그렇게 권하는데 싫다고 거절은 하면서도 나 혼자만 무대에 못 올라가고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 허수하기도 했어.

그런데 며칠 지난 어느 날 점심 시간이였단다.

분단 동무들은 나를 수건 돌리기 하자고 갑자기 끌고 나가지 않겠니… 그래 나두 한창 정신이 팔려 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았던 동무가 나를 꾹꾹 찔러 주겠지, 그래 깜짝 놀라 뒤를

돌아 보니까 내 뒤엔 어느새 수건이 놓여 있었고 수건 돌리던 동무는 거의 나를 향해 뛰여 오고 있었단다. 그래 난 어쩔 줄 모르고 덤비다 수건을 집어 들고 뛰여 달아 났어, 그랬더니 동무들은 《야!》하고 분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새로 온 동무의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다 틀렸다고 옆에 동무를 원망하더니 나도 내 옆에 동무도 모두 노래해야 한다고 야단들이였어, 그래 못이겨 노래를 불렀더니 그렇게 잘 하면서도 써클에 안나가려고 했다고 하면서 공부가 끝나자 집엘 못가게 하였단다. 그래 난 부끄러워도 할 수 없이 그날부터 합창단에서 련습하게 되였는데 그들은 나를 무용에도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겠니…

그후 얼마 안 있어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분단이나 할 것 없이 연극, 만담, 재담, 시랑송, 스켓취이며 남자 동무들의 쏘련 무용은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그중에도 우리 분단 무용극은 우리 분단 생활을 그대로 잘 그렸다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무척 칭찬하셨단다.

그래 우리 분단에서는 광산 아저씨들을 위해 넓은 광산 구락부 무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하고 지난 도, 시, 군 대의원 선거 날에도 여러 선거 분구에 나가 공연하였단다. 나두 그 넓은

무대에 올라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합창도 하였고 무용도 하지 않았겠니…

이런 공연은 물론 우리 분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다른 분단에서두 모두 하고 있고 각 분단의 좋은 프로를 모아 대 연예대도 조직했어, 그런데 또 학교에선 우리들을 위해 운동장 한 구석에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단다. 일요일이면 이 무대에서 각 분단이 서로 경쟁하듯 연예를 즐긴단다. 무대에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운동장에서 뛰놀던 동무들도 노래에 따라 다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흥겨이 부른단다.

어떤 때는 퇴근하시던 광산 아저씨들까지 모여와 박수를 보내 주시겠지.

우리들이 방과 후에 즐기는 것은 연예 써클에서 뿐만 아니야. 동무들은 늘 새로운 유희와 오락을 배우며 명랑하게 생활하고 있어. 동무들은 나더러 곡산에 있을 때 배운 재미 있는 유희와 노래를 같이 배워서 놀자고 얼마나 졸라대겠니…너두 잘 알지만 그렇게 놀음터에란 섞이지두 않던 내가 무엇을 가르쳐 주겠니…나는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에 정말 미련 같았던 내 생활을 후회하고 있어.

광산 마을 어머니들은 이곳 동무들이 쾌활하고 씩씩한 것은 모두 부모의 성품을 닮았다고도 하지만 누구나 한 사람처럼 유쾌하게 뛰놀고 즐기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느껴져. 이렇게 유쾌하게 다 같이 즐기는 이곳 동무들은 다정한 자기 동무들을 떠나 혼자 놀 생각은 하나도 않고 있어.

때문에 결석하는 동무는 한 사람도 없고 늘 서로 지지 않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단다. 또 모임 때 말하는걸 보면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 늘 손잡고 같이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뛰놀던 동무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으니까…

나두 이곳 동무들과 같이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전처럼 학습시간에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버릇도 없어지고 요전 분단 모임에서 토론까지 했단다. 때때로 열리

는 오락 시간에 《동무들! 다 같이 노래하는 것이 어때》하고 내가 소리치면 박수를 치며 다같이 노래를 부르겠지. 이럴 때마다 나는 그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군 해…

명희야!

이렇게 말한 것이 이 학교에 전학해 와서 느껴진 전부는 아니야,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하겠지만 이곳 소년단원들의 재미있는 생활을 알고 싶어한다는 분단 동무들에게 분단 위원장인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전해 주려마.

다시 그곳 동무들의 소식이 전해지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그친다.

황북도 신평군 백년 인민학교
4분단에서 리 정자로부터

겨울의 온실에서

우리 학교에는 소년단원들의 자랑인 온실이 있습니다.

유리창에 성애가 하얗게 어리는 추운 날에도 온실 안은 따뜻하고 훈훈하답니다. 그것은 온실 밑바닥에 온돌을 놓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면서 크루쇼크원들이 항상 불을 때군 하니까요.

온실에서는 지금 국화꽃, 맨드래미꽃, 선인장 등 많은 꽃들이 여름철과 다름 없이 꽃을 피우고 있으며 크루쇼크원들은 그 꽃들을 계속 관찰하며 재미나는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애, 춘자야. 선인장은 물을 적게 주어도 괜찮아》.

《그래, 선인장은 메마른 사막 지대에서 자라던 식물이니까 갈증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지》.

《그러나 들국화는 습기 많은 곳에 자라는거니까 물을 많이 주어야 해, 들국화의 뿌리는 이내 목이 컬컬해 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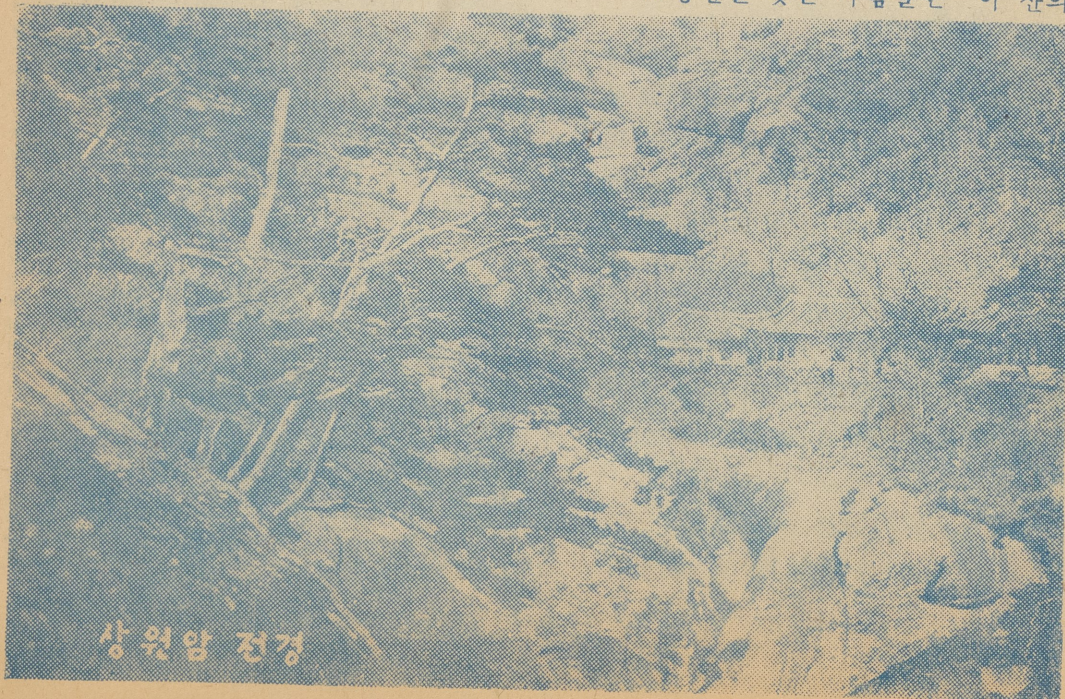
이렇게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꽃들의 성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화초들을 손질해 나갑니다. 온실에서는 콩, 밀, 호박, 오이 등 18종의 재배 식물들이 싹트고 자라나는 모양을 크루쇼크원들이 매일 관찰하며 일지에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온실에 이식해 놓은 고추와 가지는 지금도 싱싱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년생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크루쇼크원들은 겨울 동안 계속 꽃피고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황남 신원군 아양 인민 학교
엄 병 화

그 모습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묘향산!

묘향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9월산, 지리산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4대 명산의 하나로 이름 높습니다.

해발 1,909m나 되는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한 높고 낮은 봉우리들은 봉우리마다 그 생김생김이 묘하고 웅장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묘향산은 골짜기마다 고산 식물과 각종 화초들이 만발하여 꽃향기 풍기는 봄도 좋고, 나무'잎 한결 더 푸르러 록음을 자랑하는 오류월도 좋습니다. 붉게 타는 단풍이 푸른 산을 수놓는 구시월과 사철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 젓나무들이 흰 눈을 쓴 겨울의 묘향산도 볼만합니다.

산주폭포

또한 상원암 동쪽 골짜기들에 있는 유선, 금강, 대하, 산주, 룡연, 그리고 높이가 211m나 되는 천신동 폭포들을 비롯한 많은 큰 폭포들이 묘향산의 경치를 더 아름답게 해 줍니다.

묘향산을 찾는 사람들은 이 산의 경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슬기로운 문화 유물들을 보게 됩니다. 청기와, 황기와 그리고 옛날, 우리 인민들의 뛰여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절 등은 지금 특수 박물관으로서 인민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원암 전경

상원에 있는 룡각석

만폭동에 있는 폭포

조국의 아름다운 향토를 사랑하는 인민들이 이 곳에서 량반 착취 계급을 반대하여 싸운 이야기며 임진 조국 전쟁 때 서산 대사 (최 운학) 가 늙은 몸으로 인민들과 더불어 왜놈들을 무찌른 이야기 그리고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미제를 무찔러 싸운 전적지로서 묘향산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진 곳입니다.

이렇듯 웅장하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묘향산은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훌륭한 휴양지로도 되고 있습니다.

묘향산은 청천강 기슭인 평북 향산군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서 지하 금강이라고 불리우는 동룡굴과 새로 발견된 백령대굴도 멀지 않습니다.

김 경 태

1.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은 이야기
마을에서 소문난
장난'군 이야기

〈소금 장수〉의 아들
차돌이의 이야기
듣고 듣고 또 들어도
듣고 싶은 이야기.

—무슨 이름 못 지어
　차돌이라나?
너희들은 이상히
생각하리라.

그러나 그랬단다
옛날에는 그랬단다.
량반 지주 판을 치던
옛날에는 그랬단다.

소금을 등에 지고
팔러 다니니,
아버지의 이름은
〈소금 장수〉.

그 아들의 이름은
〈소금 장수〉의 아들
이렇게 이렇게만
불렸다누나.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인지?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소금 장수〉의 아들
백차돌처럼
빤질빤질 단단하여

똑똑도 하여,

〈차돌〉이라 불리우기
시작한 것이,
오늘도 〈차돌〉이라
불리운단다.

2.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언제나
마을에서 마을로 흐르는 소리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이 마을 저 마을
그 누구도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 차렸지,

분이네의 바둑이도
옥이네의 야웅이도,
착하고 부지런한
〈소금 장수〉를—

집집마다 사람마다
마음씨 고와,
—소금이 백옥 같다
　칭찬도 하고,

그만큼 소금 값도
후이 쳐 주고,
해 지면 잠'자리도
권했더란다.

이렇게 지나던
그 어느 해,
온 세상에
가물이 들었다누나.

그 해부터 3년
두고 두고 내내—

구름 한점 없는
하늘만 봤지.

들어난 강바닥
물 말라 갈라지고,
푸른 산 푸른 들
시들었구나.

산새도 들새도
깃들 데 없어,
슬퍼서 슬피슬피
울었다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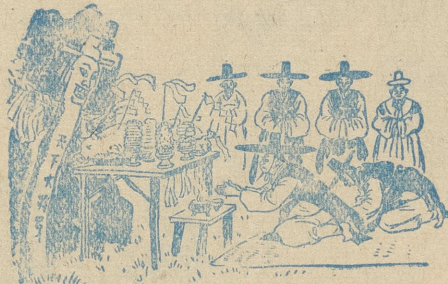
3.

비를 빌러
원님이 드나 들었지
삘리리 닐리리
풍악 잡히고,

길 비켜라 엎드려라
라졸 이끌고,
가마 타고 채일 치고
우쭐우쭐 나왔지.

한번을 빌어도
열 두번을 빌어도
빌어도 빌어도
비는 안 왔지.

비를 빌러
원님이 나올 때마다,
소 잡아라 떡 쳐라
불호령이 따랐지.

오양'간 빈 집
쌀독이 빈 집,
빈 것이 늘수록
안팔리는 소금짐.

무거운 소금짐
지고 다니기,
어깨도 천근 다리도 천근
지치고 지친 〈소금 장수〉.

토담 그늘 찾아서
소금 지게 세우고
그 그늘에 엎디여
원님 행차 보냈지.

그늘 찾아
누구누구 모인 이 자리,
〈소금 장수〉 담배 쌈지.
빙빙 돌았지.

꼴고루 한대씩
피우는 담배,
훅— 뿜는 연기에
한숨이 섞여 있었지.

그래서 담배 쌈지
한숨 쌈지 되였지,
한숨 쌈지 거두던
〈소금 장수〉 말.

—이것 보오!
　비가 오겠소!
　비, 비가 오겠소!
　비가 온단 말이요!

하늘을 우러러
모든 눈 쏠렸지
—비가 어데서
　온단 말이요?

하늘은 그냥 푸르고
해'볕은 그냥 따겁고
그래도 비가 온다지!
래일이면 온다지!

4.

비가 오네 비 오네
약비가 오네,
〈소금 장수〉 말 대로
약비가 오네.

마른 땅에
약비가 스며 배이듯,
〈소금 장수〉 이름이
귀마다에 배였지.

비를 빈 원님보다,
소 먹고 떡 쳐먹은
물귀신보다
〈소금 장수〉 으뜸이라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갔지,
원님의 귀에까지
울리여 갔지.

—정말로 그 놈이
얼마나 용한지?
그 놈을 불러다
시험을 치리—

시기 많은 원님
기다린 때,
겨울에도 한 겨울에
〈소금 장수〉 불렀지.

—나보다 귀신보다
네가 으뜸이라지?
시험에 떨어지면
네 목숨은 내 것이리!

래일 오정까지
산딸기를 따오라!
빨간 것 못 따오면
네 목숨은 내 것이리!

관가를 나서니
하얀 눈,
송이 송이 내리는
하얀 눈,

〈소금 장수〉 앞길에
하얀 눈,
송이 송이 흰 눈이
앞을 가렸지,

5.

썰매 타기
눈 싸움,
무엇에나 마을 대장,
장난'군 〈차돌이〉

코 흘리게
어린이 잘 도와 놓고,
둥지 털어 잡은 참새
날려 준 〈차돌이〉

우루루 달려 든
정다운 방 아래'목,
아래'목에 누워 앓는
아버지,

—아버지!
어디가 편찮은가요?
머리는 어째서
동이셨나요?

—아들아,
내 설음 들어 보아라…
래일이면 너와도
헤여지게 됐구나…

담배 쌈지 꺼낸 아버지
담배를 한대 피우셨지,
담배 쌈지 또 다시
한숨 쌈지 되였지.

언제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담배 쌈지,
말가죽 담배 쌈지,

〈차돌이〉 눈에도 익은 쌈지.

말가죽 쌈지에
물'기가 돌 때,
그것은 비가 올
징조이였지.

오래 오래
품고 다닌 쌈지서
아버지는 그 비밀
알아 내였지.

—이놈이 우리를
못살게 하누나!
담배 쌈지 팽겨치는
아버지의 말,

〈차돌이〉는 들었지
원님의 고약함,
〈차돌이〉는 들었지
아버지 설음…

—아버지!
조금도 걱정 마세요,
래일 오정까지
누워만 계세요.

〈차돌이〉는 동무 찾아
밖으로 내달렸지,
동무들이 그리워
하얀 눈이 그리워—

6.

이튿날 오정 때
헐떡헐떡 관가로
달려 든 〈차돌이〉
원님을 찾았지.

—삼가 아뢰옵니다.
산딸기 따러 갔던 제 아비
살모사에 물리여
그냥 돌아 왔소이다.

—당돌한 놈!
겨울에 살모사가
어디 있을고?
이놈을 잡아 쳐라!

—아니올시다,
겨울에 살모사가 없다면
겨울에 산딸기도
없는 줄 아뢰오.

쩌렁쩌렁 울리는
〈차돌이〉 대답,
원님도 무릎을
탁 치였지.

—과연 그렇도다!
나보다 귀신보다
으뜸이도다!
썩 물러 가거라!

혀'바닥 내밀고
달려 나온 〈차돌이〉,
동무들과 한번 썰매도 타고
아버지 가슴에 안겨 들었지,

이름도 성도 없던
〈차돌이〉 이름,
그래서 오늘까지
전해전해 진다누나.

나의 국어 공부

나는 다른 과목도 열심히 복습했지만 국어'과는 늘 철자'법이 틀려서 걱정이 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을가? 하고 생각해 오던 어느 날 저녁 내 동생도 작문을 썼는데 글'자가 많이 틀려서 선생님에게서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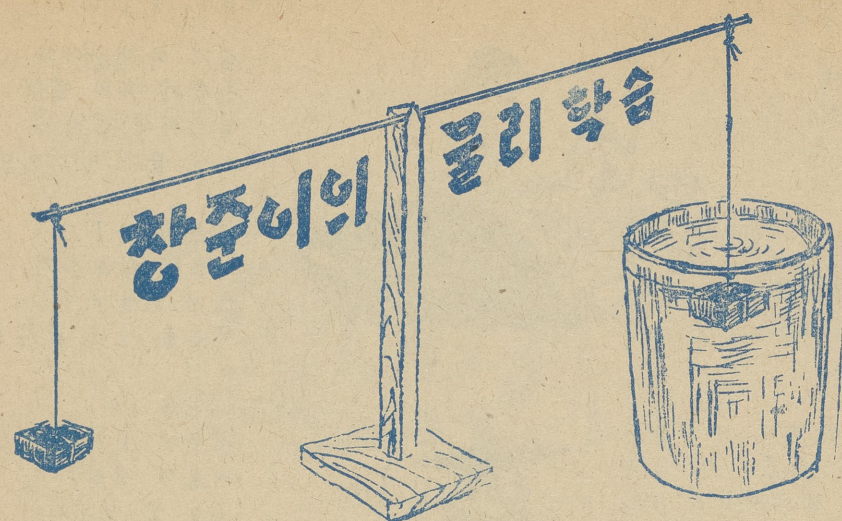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나는 동생과 같이 약속하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내가 동생의 국어책을 읽어 주면 동생이 받아 쓰고 나는 동생더러 내 책을 읽어 달래서 받아 쓴 다음 자기가 쓴 것을 교과서와 맞추어 보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참 틀린 글'자가 많아 2점도 매기고 3점도 매겼습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 계속 하니까 점점 점수가 올라 나중에는 4점 5점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온 결과 이번 학기말 시험에서는 나도 내 동생도 국어'과에 모두 5점을 맞았고 다른 학과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모두 5점을 맞아 최우등생의 영예를 지니였습니다.

평양 제4 녀중 인민반
5학년 김 순애

최 화 규

어느날 창준이의 학급에서 물리 시험을 치르게 되였다.

시험 문제는 진공 뽐프의 구조와 그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였다.

시험이 끝난 후 창준이와 영일이는 시험 문제의 답에 대하여 서로 자기가 맞는다고 옥신각신하였다.

물리에 5점을 맞아 온 창준이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풀떠기가 안측에 달려 있다고 했고 영일이는 자기가 실험해 본 기억이 생생하여 밖에 달려야 한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교과서를 보게 되였다.

《자! 보라구 내 말이 맞았지! 너는 3학년에서 배울 전기에만 열중하구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액체나 공기에 관해선 실험도 안해 보는 것이 탈이야!》 하고 영일이는 창준이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다.

(그래도 나는 늘 물리 시험에 5점을 맞아 오지 않았는가?).

창준이는 영일이의 충고가 달갑지 않았다.

도리여 창준이는 자기를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가면 전기종이나 모터 등을 만들기에 열중했다.

× ×

그후 학교에서는 락원 기계 공장을 견학하게 되였다.

육중한 기계들이 돌아 가고 《에이야 함마》라는 기계가 뽐프의 작용으로 큰 쇠뭉치를 두다리는 것을 보고 창준이는 놀랬다.

전번 시간에 배운 뽐프의 원리는 뽐프 수도에만 리용되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였다.

창준이는 《에이야 함마》를 보고 또 보았다. 확실히 뽐프의 작용이였고 그것은 전기와 련결되여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부터 창준이는 《흥, 액체나 공기쯤…》 하고 3학년에 올라 가서야 배울 전기에만 매달려 애쓴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뉘우쳤다. 액체나 공기 등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에이야 함마》와 같은 기계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영일의 충고는 옳은 것이였다.

창준이의 학습 태도는 달라졌다.

창준이는 그전처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중요한 것을 필기하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면 물리 크루쇼크 실에 찾아 간다.

그는 먼저 교과서에 있는 실험 방법으로 그날 배운 원리를 다시 실험하며 학습해 갔다.

그다음엔 그 원리들을 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실험해 보군 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실험할 때도 그는 교과서의 실험 방법과는 달리 천평'대로 실험하였다. 왼쪽 끝에 여러 개의 라사못을 매달고 오른 쪽에는 작은 돌을 매달아 균형을 잡아 놓고 오른 쪽 물체를 물 그릇에 잠그었다. 천평'대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창준이는 부력(물 속에 잠긴 물체를 뜨게 하는 힘)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물 그릇에 소금을 넣었을 때는 전보다 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였다.

그리하여 염분이 있는 물에서

나의 학습장

평양 제32 인민 학교 제3 학년
박 경 희

오빠 사 준 나의 산수 학습장은요
어느 공장 언니가 만들었을가?

언니는 우리들이 깨끗이 쓰며
공부를 잘 하라고 만든걸거야.

나는 나는 이웃집 순실이 같이
색연필로 빡빡 그려도 놓고
책장도 막 찢는 그런 짓 안해.

내가 쓰는 학습장 뚜껑 그림은
열심히 공부하란 부탁일거야.

결눈질도 안하고 공부 잘 하는
최우등생 그림이 그려져 있어

글'자도 깨끗하게 문제 잘 풀어
선생님께 5점 받는 내 학습장이
좋은 학생 만났다고 기뻐할거야.

는 순수한 물에서보다 부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고 옛날부터 할아버지들이 우량 종자를 선택할 때에 소금 물을 사용하는 것도 이 원리를 리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다음에 그는 무게는 같으나 체적이 큰 것과 작은 물체를 물 그릇에 잠그어 보았다. 체적이 큰 것은 부력을 많이 받아 뜨고 작은 것은 적게 받아 까라앉는 것이였다.

안 된 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몇억 딸라라는 돈을 써서 웽그리야 인민들의 원쑤였던 호르찌 도당들에게 무기를 쥐여 주고 사회주의 나라 웽그리야를 뒤집어 엎으려고 꿈꾸었었다.

《호르찌 도당이 또 우리를 착취해 보겠다고? 안된다!!》. 웽그리야 인민들은 사회주의로 나가는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을 지켜냈다.

미제의 꿈은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는데서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된 창준이는 많은 것을 관찰하며 배우게 되였다.

어느날 늦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온 그는 베를 짤 실토리가 물 그릇에 까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였다.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실토리나 나무 같은 물체는 물이 적거나 많거나 떠 있을 줄로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였다.

유심히 바라보던 창준이는 주전자에 물을 떠다 그릇에 조금씩 부어 보았다. 실토리는 점점 떠 오르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어떤 가벼운 물체라도 물에 잠그었을 때 그를 뜨게 할만한 부력이 없으면 까라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에게는 이처럼 자연의 여러가지 현상들을 관찰하며 실험해 보는 습관이 자랐고 시험을 앞두고 몰아쳐서 암기만 하던 나쁜 버릇은 점점 없어지게 되였다.

그의 물리 성적 5점도 보람있는 5점으로 되였다.

평북 룡천 제1 중 학교 대에서

이사 가는 굴렁쇠

송 봉 렬

골목 대장
철이의 굴렁쇠,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돌다가

떽떼구르르…
어린 가로수
허리를 치받고
신작로 복판으로
떽데구르르…

두 눈이 둥굴해서
달려 온 골목 대장

밑둥이 하얗게
베껴진 가로수
상처에 흙 고약을
척 붙이고,

두손을 입에 대고
큰 소리 치네
골목 안이 들썩
큰 소릴 치네
《애들아!
이제부터
뒤'터에 가 놀자!》.

둥그런 쇠바퀴
골목 굴렁쇠
철이의 등에 업혀
이사를 가네

다박 머리 꽈'머리
떨쳐 나섰네
공터에선 짹짹
참새들이 부르네

추운 겨울의 서울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군 트럭들과 찦차들만이 제세상인듯 욱실거리고 리 승만 도배들의 기마 경관들은 무슨 큰 일이나 난듯이 눈이 뻘개서 말에 채찍질하며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또 十자 거리 구석구석에서는 구두닦기 아이들이 새벽부터 오돌오돌 떨며 길 가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서울 청계 국민 학교 6학년에 다니는 종호도 날이 밝자 《돈벌이》를 떠나려고 서둘었습니다. 어제 종호는 토요일까지 바치라던 월사금과 월동금을 못내여 선생한테 혼쌀을 먹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지도록 채찍매를 맞고 또 캄캄해지도록 복도에서 벌을 섰다가 월요일에는 꼭 바친다고 사정하고 돌아 온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떠나려던 참입니다. 개고생을 해서라도 몇달 더 다녀서 국민 학교만이라도 졸업하고 싶었고 또 어머니도 가까스로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러나 달마다 늘어가는 그 많은 학비를 빈대떡(지짐) 장사로서는 대 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도 종호가 차마 어머니에게 돈 달란 말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 겪은 것입니다. 종호는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학비를 보태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쓰레기통들을 샅샅이 뒤지여 깡통이며 빈 병 등 고물들을 주어 모아 팔군 했습니다.

종호가 막 집을 나서려 할 때입니다.

별안간 밖에서는 요란스러운 말 발굽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종호는 성큼 뛰여 나가 보았습니다. 10여명의 경관놈들이 달라 붙어서 판자'집들을 마치와 도끼로 퉁탕 부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놈들의 트집이로군…》하고 판자'집 마을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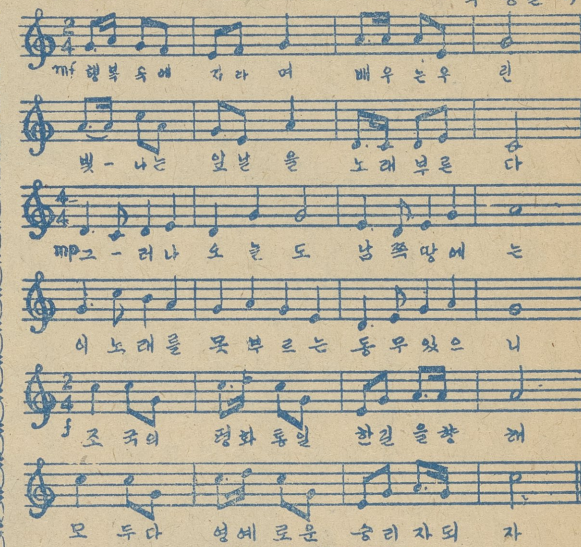
수근거립니다. 어제 저녁에 술취한 미군 두놈이 길 가던 녀자를 붙들어서 끼고 가다가 캄캄한 이 판자'집 거리 골목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녀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아 밖에 나왔던 판자'집 거리 사람들은 그 녀자를 슬쩍 감추어 주었습니다.

미군 두놈은 비틀거리며 찾다가 하는 수 없이 돌아서 가며 《우리 미국 사람, 서울 삽네다. 판자'집 더럽삽네다!》 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봉변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리 승만 도배들의 어마어마한 《판자'집 철거령》이 내렸습니다. 핑계야 좋지요. 미국 사람 많이 사는 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게니까요.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살라고 그럽니까? 겨울 동안만이라도 용서해 주십소!》 하고 판자'집 주인들은 매달려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판자'집 철거령 몰라?》 하고 경관놈들은 살이 점점이 드러나 뵈는 누더기를 걸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아이들도 아랑곳 없이 발'길로 차며 판자'집들을 차례로 헐어 버립니다.

판자'집 거리는 땅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과 구경'군들로 북새통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여 종호네 집에도 경관놈들이 달려 들었습니다.

《안되요, 우리 집은 못부셔요!》.

종호는 그놈들 앞에 다가 가서 두 팔을 벌리고 버티여 막아섰습니다.

《이 집을 부시려면 내 머리까지 부셔라!》 하며 종호 어머니는 종호를 밀치고 달려 드는 경관놈들의 등'골을 끌어 당겼습니다. 종호는 다시 일어나 놈들의 허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경관 두목놈이 호령했습니다. 《저 년놈을 치워 버려라!》

미국총과 곤봉을 든 경관놈들

은 종호 어머니를 꺼꾸러뜨렸습니다. 넘어지는 어머니에게로 달려 가던 종호는 경관놈이 후려 갈기는 곤봉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조사나 하듯 이곳을 지나가던 미군 두놈은 이 광경을 보고 《헤이 헤이》하고 통쾌한듯이 껄껄대고 있었습니다.

× ×

종호가 정신을 차려보니 낮익은 박 선생네 집이였습니다. 태식이가 사온 청심환을 먹고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 선생은 종호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종호를 가르치던 선생입니다. 공부를 잘 하고 똑똑한 종호를 박 선생은 몹시 사랑했고 종호의 집에도 자주 찾아 오며 학비도 대신 이따금 내주군 했습니다. 종호의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북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 여름에 박 선생은 학교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안양에서 농사 짓다가 못살게 되여 벼를 논에 세워 놓은채 팔아서 밀리고 밀린 세금과 빚을 갚고 거지나 다름없이 되여 서울에 올라 왔던 종호네 식구들—고된 막벌이 로동으로 기둥처럼 믿던 아버지를 잃은 종호와 그의 어머니—그들은 한 고향 사람인 태식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련했던 판자'집마저 놈들에게 헐리우고 말았습니다.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은 문을 뒤흔듭니다.

《난 죽지 않아요,…이제 우리도 "북"(공화국)에서와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요! 선생님!》

박 선생과 어머니의 끄덕이는 얼굴을 바라보는 종호의 눈은 빛났습니다.

주인과 개의 놀음

소위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이것은 주인과 개의 놀음이다.

먹여 살리던 《개》(리 승만)와 그의 주인(미제)이 서로 《평등》하고 어쩌구 하니 이것은 웃음꺼리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미제는 이것을 구실삼아 남조선을 몽땅 삼켜보려는 꿈을 꾸고 있으며 리승만은 이에 비위를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은 소리 높여 이 매국 조약을 반대 규탄한다.

전체 조선 인민은 이 매국 조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필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고야 말 것이다.

소금 저린 오이

(번역 소설)

나딸리야 멘젤쏜

《아이들아, 이 다음 시간까지 고무 점토를 가지고 오이를 만들어 오너라—하고 나제쥬다 니꼴라예브나 선생이 말하였다—너희들은 누구나 다 오이를 보았겠고, 자기 집 터밭에서 오이밭의 김을 매여 보았겠지. 그리고 아마 오이를 실컨 먹어도 보았을거야》.

쏘마 도가드낀은 손을 번쩍 들고, 선생이 미처 시키기도 전에 말하였다.

《나는 오이를 먹어 본 일이 있습니다》.

모두 까르르 웃었다.

《말해도 좋습니까?》하고 앞줄에 앉은 말라꽁이 소녀 이와노바 왈랴가 물었다. 그는 일어서서 교실을 쭉 훑어 보고 말하였다.

《우리 집에는 지금 오이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싹 하나는 수염으로 줄기를 걸고 사과나무에 기여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여 그 줄기에 오이가 데롱데롱 매달렸습니다》.

끄쓰찌크 구리야노브의 머리에는 오이에 관한 것이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한시바삐 집에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오늘 이웃 마까르 할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배를 가져다 주게 되여 있었고 또 할아버지는 끄쓰찌크에게 배에 색칠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끄쓰찌크는 오른 짝 귀를 문쪽에 기울이고 오른 눈을 깜빡거리며 앉아 있었다. 소제부가 낡은 종을 딸랑거리며 복도를 지나가지 않나 하고 내내 귀 기울이고 있었다. 마지막 시간이 끝났다.

× ×

끄쓰찌크가 살고 있던 낡은 집 뜰에서 통나무우에 마까르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대패밥이 널려 있었다. 그는 새 로를 다듬고 있는 것이다. 집개 그리샤는 담장 곁에서 알락달락한 꼬리를 가진 남의 집 수탉을 몰고 있었다.

《까불지 말아, 그리샤야, 까불지 말아》하고 마까르 할아버지는 이따금 말하군 하였다.

끄쓰찌크는 삐걱거리는 사립문을 활짝 열고 뜰로 달려 들어왔다.

《마까르 할아버지, 배를 가져왔어요?》 하고 그는 단숨에 물었다.

《오냐, 얘야,

직공이 아직 배 밑바닥에 칠을 하지 못했다더라, 이틀만 있으면 가져다 주겠지》

《아이 참, 그런걸 나는 줄곧 달려 왔지요》하고 끄쓰찌크는 성을 내였다.

점심을 먹고 휴식한 다음 끄쓰찌크는 공부를 하려고 앉았다. 책상 마즌 쪽 창으로는 강과 큰 배들을 이어서 만든 다리가 바라보였다. 강은 자주 끄쓰찌크의 공부를 방해하였다. 그는 숙제를 풀려고 생각은 하나 눈은 어느덧 속력 빠른 발동선들이 물'살을 가르고 증기선들이 떼'목과 짐'배를 끌고 달리는 강을 바라본다.

이번에 끄쓰찌크는 공부를 빨리해 치웠다. 뜰에서는 아직도 마까르 할아버지의 도끼 소리가 탕탕 들려 오고 있었다. (참, 로를 만드는게 굼뜨군)하고 끄쓰찌크는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는 아직도 고무 점토로 오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끄쓰찌크는 책상에서 뚤뚤 말은 갈색 종이 한 장을 끄집어 내여 가지고 그것을 책상 우에 펴 놓았다. 그는 종이 량 끝을 무거운 못뽑이들과 마치로 눌러 놓았다 끄쓰찌

크는 색색의 고무 점토 쪼각들을 곽에서 쏟아 놓았다. (이것도 일이람, 오이 만드는게? 배를 만들라고나 하지)하고 끄쓰찌크는 생각하였다. 그는 파란 고무 점토를 한 쪼각 뜯어서 그것을 손바닥으로 비비였다. 냄새를 맡아 보았다. 어떤 독특한 냄새가 났다.

끄쓰찌크는 고무 점토를 비비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그것을 돌돌 굴려서 공처럼 만들기도 하였고 눌러서 빵떡처럼 만들기도 하였다. 그는 두 손바닥으로 엿 가락처럼 길게 빚은 다음, 그것을 몇 번이나 쳐서 자기 코에다 갖다 붙였다. 끄쓰찌크는 거울을 보려고 달려 갔다 거울에서는 길다란 푸른 코를 붙인 얼굴이 끄쓰찌크를 내다 보고 있었다.

《멋있는 데!》하고 끄쓰찌크는 기뻐서 깡충 뛰였다. 그는 뜰로 향한 창의 카텐을 벗겼다. 마까르 할아버지는 아직도 여전히 로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로를 눈 높이 만큼 들어서 이리저리 보며 자기의 작업을 검토해 보군 하였다.

《마까르 할아버지, 나를 좀 보세요!》하고 끄쓰찌크는 웨쳤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지 못했다. 고무 점토로 만든 코는 떨어져서 창문 턱 우에 굴러 떨어졌다.

(옳지, 내가 아직도 오이를 만들지 않았구나!)하고 끄쓰찌크는

《재판 받는 쥐》를 실으면서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약 4백년 전에 림 제라는 사람이 쓴 소설 《서옥설—재판 받는 쥐》를 이야기로 만든 것이다.

이 작품은 나라 창고의 쌀을 도적질해 먹던 쥐가 창고신 앞에 붙들려 가서 재판 받는 것을 그리고 있다.

간악한 쥐는 자기 죄를 벗기 위하여 복사꽃, 버드나무, 고양이, 개 등등(28종)이 자기를 추겼다고 꼽아댄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다 그럴듯 하게 쥐의 거짓을 폭로해 버린다. 그래서 쥐는 다시 반디'불…바다의 대붕(실지는 없는 새) 등등(44종)의 동물을 찍어대고 다음으로는 벌과 파리 등등(12종)의 벌레들을 끌어댔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말들을 잘하여 쥐는 끝내 창고신을 속여 넘길 수가 없었다.

간사하고 흉측한 쥐는 나중에는 하늘과 땅, 해와 달들까지가 자기를 추겨서 나라 쌀을 훔쳐 먹게 하였다고 꾸며댔다. 그러나 끝끝내 쥐는 자기 죄를 남에게 넘겨 씌우지 못했을 뿐더러 하늘의 위신을 더럽혔다는 죄로 자기의 수많은 떼거리와 함께 무서운 처벌을 받고 죽어 버린다.

이렇듯 이 소설은 우화 형식으로 씌여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하여 작자는 그 당시의 량반들과 관리들의 나쁜 짓과 어리석고 너절한 일처리를 마음껏 비웃어 주고 있다. 나라 재산을 도적질해 먹고도 뻔뻔스럽게 그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량반 무리들을 쥐에다 비겼으며 나라 일을 되는 대로 처리하면서 공연히 백성들만 못살게 굴던 관리들을 어리석은 창고신으로 그렸다. 그리고 쥐를 추겼다는 혐의로 붙들려 오는 동식물들로써 그때의 각 계층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 림 제는 자기 자신 나쁜 놈들을 비웃고 미워했으며 또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놈들을 미워하도록 일깨워 주었다.

(1) 옛날 어느 한 오복한 땅 구뎅이에 커다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가 반 자나 되고 털 길이가 두어치나 되는 그는 꾀도 있고 말도 잘 하여 뭇 쥐들의 두목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2) 어느 날 두목 쥐는 뭇 쥐들을 모아 놓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늘 마음을 못펴구 옹졸하게 사니 도무지 꼴이 됐느냐, 내가 들으니 저 나라 창고에는 쌀이 산'더미 같이 썩고 있다는데 거기에 스며 들어 가서 보금자리를 펴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는 빚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이라고 만든 것이 긴 막대기처럼 되기도 하였고, 고구마처럼 되기도 하였다. 피곤해진 손'가락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끄쓰찌크는 식탁 우의 접시에 들어 있는 한 쌍의 소금 저린 오이가 눈에 띄였다. 그 오이에서는 즙이 스며 나와 있었다. 눌리워서 납작해졌고 허리가 움푹 들어간 것이였다.

(바로 이런 오이를 만들어야 해! 이게 훨씬 쉬울거야)하고 끄쓰찌크는 기뻐하였다. 그는 우선 공처럼 만들고 그것을 다섯 손'가락으로 꽉 쥐여서 울뚝불뚝하게 만들어 놓고는 아주 만족해 하였다.

(틀림 없이 아이들은 지금 애

를 빡빡 쓸거야, 이러한 《소금 저린》 오이를 만들려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못할걸).

끄쓰찌크는 고무 점토로 만든 《소금 저린》 오이를 코'수건으로 뚤뚤 말아서 가방 속에 쑤셔 넣었다.

《끄쓰찌크야, 오늘 네가 공부한 것을 좀 보이여 주렴》하고 저녁에 어머니가 말하였다. 끄쓰찌크는 가방 속에서 학습장들을 꺼내였다. 그러나 오이를 싼 수건은 펼치지 않았다.

× ×

다음 날 공부 시간에 녀선생이 전체 아이들에게 만들어 온 오이를 책상 우에 내놓으라고 하였을 때 끄쓰찌크는 살며시 주위를 돌아 보았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오이를 내여 보이면서 와글와글 떠들었다. 오이는 큰 것, 작은 것, 굵직한 것, 가느다란 것— 모두 가지 각색이였다. 그리고 쏘마 도가드낀은 자기 오이의 한 옆구리를 노란 고무 점토로 만들었다. 《내꺼는 종자 받는 오이야. 이런 것에서 종자를 받거든》하고 쏘마가 설명하였다.

녀선생은 교실을 돌아 다니며 보았다. 그는 만족해 하였다.

《얘들아, 아주 잘들 만들었다!》. 그는 끄쓰찌크의 책상 곁에 서더니 그의 오이를 들어서 온 교실에 구경시켰다.

《얘들아, 이것이 무엇이겠니?》하고 그는 물었다.

《나는 그것이 우유 과자라고 생각합니다》하고 쏘마 도가드낀이 맞쳐 보았다.

《끄쓰찌크, 말해 봐, 너는 무엇을 만들었니?》하고 녀선생이 물었다.

끄쓰찌크는 얼굴이 빨개져서 책상에서 한 발자욱 나섰다.

《나는…나는…소금 저린 오이를》하고 끄쓰찌크는 중얼거렸다.

(3) 뭇 쥐들이 잘 살 좋은 수가 났다고 기뻐하면서 두목 쥐를 따라 나라 창고에 찾아 갔습니다. 창고는 외딴 곳에 있어서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쥐들은 한나절도 못되여 창고 벽 밑에다 커다란 구멍을 뚫고 안으로 쓸어 들어 갔습니다.

(4) 창고 안에 들어 간 수천 마리의 쥐들은 마루 바닥에 쌀낟을 펴 놓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10년이 머다 해서 고방 안이 거의 비게 되였습니다.

(5) 창고에는 창고지기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신은 한번도 고방 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장부를 펴들고 쌀섬을 세여 보았습니다. 쌀은 너무나 엄청나게 축갔습니다.

(6) 깜짝 놀란 창고신은 신병들을 불러 당장에 도적을 잡아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병들이 두목 쥐를 잡아 왔습니다.

창고신은 두목 쥐를 꿇어 앉히고 큰 소리로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백년 먹을 나라 쌀을 없애 버렸으니 죄는 엄중하다. 네 놈의 씨가리와 너를 추긴 자들을 모조리 아뢰여라!

《그런데 그것을 너는 오래 걸려서 만들었냐?》하고 녀선생은 빙긋이 웃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하고 ㅍ쓰찌크는 아주 가느다랗게 말하였다.

선생이 ㅍ쓰찌크의 오이를 놓고 교탁으로 가 버리자 ㅍ쓰찌크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의 귀는 화끈 달아 올라 있었다.

《어째서 너의 귀는 이렇게도 새빨갛니?》하고 ㅍ쓰찌크에게 그의 짝패가 물었다.

《네 귀는!》하고 ㅍ쓰찌크는 투덜거렸다.

《아이들아, 이 다음 시간에는 사과를 만들어 오너라. 그런데 ㅍ쓰찌크, 너는 아예 사탕 저린 사과라든가 군 사과는 만들지 말아》하고 녀선생은 말하였다.

그리하여 ㅍ쓰찌크는 깨달았다. 이것은 소금 저린 오이가 아니라 ㅍ쓰찌크의 태공이라는 것을 녀선생이 물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리 원 주 역)

※ 고무점토는 진흙처럼 아이들이 뭉치고 빚는 등 공작하는데 쓸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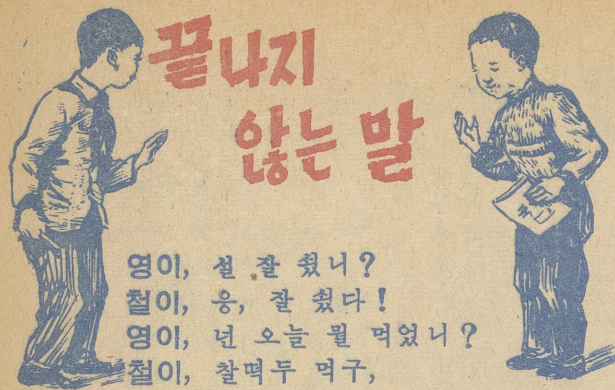
(7) 이 무서운 호통에 두목 쥐는 그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살살 부비며 아뢰였습니다.

—여쭈옵기 황송하오나 저에게는 아무런 씨가리도 없사옵고 다만 늙은 것이 딴 도리가 없어서 겨와 쭉정이를 조금씩 훔쳐 먹었삽네다.…죄는 크오나 복사꽃은 저를 보고 벙실벙실 웃어 주었고 버드나무는 제가 하는 짓을 축하하여 춤을 춰 주었습니다.

(8) 그럴듯이 꾸며대는 쥐의 말을 듣고 창고신은 복사꽃과 버드나무를 불러다가 따졌습니다.

복사꽃이 새룻해서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봄빛이 좋아서 웃었을 뿐이외다. 저놈의 수작은 참말 어이가 없사외다.

다음은 버드나무가 시날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봄 바람에 춤을 추는 것이 저의 천성이온데 그것이 저놈과 무슨 상관이 있사오리까 정말 분하기 짝이 없사외다.

끝나지 않는 말

영이, 설 잘 쇘니?
철이, 응, 잘 쇘다!
영이, 넌 오늘 뭘 먹었니?
철이, 찰떡두 먹구,
영이, 또?
철이, 마음 굳게 먹었지
영이, 무슨 마음?
철이, 날마다 너보다 늘 한 시간씩 더 공부할 마음,
영이, 건 왜?
철이, 올해엔 널 앞서려구!
영이, 흥, 내가 질 줄 아냐? 그래도 난 또 너보다 한 시간씩 더 공부하겠다.
철이, 고까지 한 시간? 난 그럼 너보다 두 시간 더 하겠다.
영이, 난 또 너보다 한 시간만 더 하겠다.
철이, 난 너보다 두 시간 더 한데두.
영이, 어쨌든 난 너보다 언제나 한 시간씩 더 한단 말이야.
철이, 난 그럼 너보다 세 시간 더하겠다.
영이, 그래도 또 너보다 한 시간 더하겠다.
철이, 세 시간이면 한 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많다 얘!
영이, 어쨌든 난 너보다 한 시간 더한다니까.
봉남, 너희들 무얼 옥신각신하느냐? 내 멋있게 재판해 주마.
영이, 글쎄 저앤 나보다 날마다 두 시간 세 시간 더 공부하겠다거든. 그래 난 저애보다 한 시간씩만 더 한다고 했지!
철이, 한 시간만 더 한다기에 난 두 시간 세 시간까지 더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더하는게지 뭐야.
영이, 네가 아무리 더 해두 난 너보다 한 시간만 더 한다니까!
봉남, 한 시간 더, 두 시간 더, 한 시간 더, 세 시간 더…하다간 하루가 백 시간이라도 모자라겠구나, 너희들의 말은 끝나지두 않겠구… 마음 먹은 대로 하루도 어기지 않고 꾸준히 하는게 으뜸이야!
일동, 하하…

(리 기 봉)

(9) 창고신이 다시 쥐를 꾸짖었습니다.

—저들은 아무 상관도 없다. 너를 추긴 놈을 썩 바루 대지 못할테냐?

—네네, 황송하나이다. 사실인즉 창고 바깥 문지기와 안 문지기가 저를 허락했사외다. 바깥 문지기와 안 문지기가 또 불들려 왔습니다.

(10) 창고신이 노해서 바깥 문지기와 안문지기에게 따졌습니다. 바깥 문지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담을 넘고 구멍을 뚫는 놈이 있는 줄 모른 것이 불찰이옵니다. 결과는 엄중하오나 제가 그놈들을 허락했을 리야…안 문지기가 말했습니다—…늘상 정신을 차리고 지켰지만 저런 미물이 그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삽네다. 부끄럽기 그지 없사외다. 앞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유희) 눈감고 사람 그리기

그림과 같이 눈 우에 사람 형체만 두개 그려 놓고 유희할 동무들은 두편으로 갈라 두 줄로 섭니다.

심판자는 유희자들에게 그림 그릴 순서를(첫 사람이 눈 그린 다음엔 그 다음 사람들은 코 그리는 등 차례로 그린다)정해 준 다음 각각 그림 앞에 가 섭니다.

한편에서 한 사람씩 내여서 다른 편 사람의 눈을 가리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유희자가 1m 밖에까지 나와 그림 그릴 방향을 본 다음에 그의 눈을 싸매 줍니다.

유희자는 자기가 맡은 것(눈, 코, 입, 머리카락등…)을 짐작해서 그립니다.

빨리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편이 잘 그렸는가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잡지 《소년단》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라의 첫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새해를 큰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로 독자 여러분도 자랐고 잡지 《소년단》도 자랐습니다. 새해부터 잡지 《소년단》은 6만 5천부를 내며 인민 학교 소년단원들 뿐만 아니라 초급 중학교와 초급 보습반 소년단원들에게 까지 보내게 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들의 소년단 생활의 이모저모를 많이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소년단》 편집부

(11) 창고신은 또 쥐가 불어대는 대로 진병을 시켜 푸른 고양이와 누른 개를 불들어 왔습니다.

고양이는 몹시 암상스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제가 쥐를 추겨요? 그놈들을 씨가리채 다 잡아 먹지 못한게 한이올시다.

개도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너그러이 굴었더니 욕을 다 보게 되는군! 다음부터 한 놈도 용서치 않겠습니다.

(12) 쥐는 잠시 얼굴을 붉혔다가 이번에는 자기와 비슷한 족제비와 두더지를 꼽아댔습니다.

족제비가 말했습니다.—저는 가끔 그놈들을 혼내우기는 하나 그놈들과 얼려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놈의 수작이야말로 밉살스럽기 짝이 없삽네다.

두더지가 넌즈시 변명을 했습니다.

—생김생김이 비슷타 하여 어찌 속까지 같사오리까? 볕을 싫어하고 먹는 것이 다른 그놈들과 노닌 일조차 없사오며 여기서 한 자리에 앉기도 저북하오이다. (계속)

명승 고적을 사랑하자!

우리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문화 유물들을 남겨 주었다.

이 문화 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꽃피운 찬란한 문화와 그의 슬기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명승 고적을 사랑한다.

600여년 전에 건축된 을밀대도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술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고적의 하나이다. 사 진… 눈내린 날 아침의 을밀대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칠성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7년 1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7년 1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1 호 총(88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331 값 25원 65,000부 발행

어름판에서……평남 안주 제1 인민 학교 5의 2 최 수 웅 그림